

부활절 다섯번째 / 어린이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E 5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3년 5월 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69 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일442)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96 번 어린이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Ephesians) 5:8-17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기 도”	찬양대
설 교 Sermon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For Your Were Once Darkness)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 앞에 엎드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04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40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네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신앙의 순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순수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자꾸만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믿음의 순수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19: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개역개정 **엡5:8**)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NIV **Ephesians 5: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7 (주일)	5/8 (월)	5/9 (화)	5/10 (수)	5/11 (목)	5/12 (금)	5/13 (토)
	민15	민16	민17,18	민19	민20	민21	민22
본문	시51	시52-54	시55	시56,57	시58,59	시60,61	시62,63
	사5	사6	사7	사8:1-9:7	사9:8-10:4	사10:5-34	사11,12
	히12	히13	약1	약2	약3	약4	약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10수 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3)-“십자가” (눅9:22)
토요 새벽기도회(5/13토 오전6:30)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119:25-32)

지난 주일(4/30)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36)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애굽기 21:12-27)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동형보복법(同形報復法)” 또는 “탈리온 법(talionis)”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갈등 상황 (가령, 살인, 인신매매, 상해, 폭행 등)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하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질 수 있는지? 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피의 보복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마5:38-39)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는 단지 “보복하는 정의”만이 아닌, 그 근본을 “회복하는 정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속에 녹아 있는 용서, 그리고 용서 안에 녹아 있는 정의를 함께 언급하심으로 인해, “무엇이 진정한 정의이며?” 또한 “무엇이 진정한 용서인지?” 를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의미의 “정의”가 아니며,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편 뺨을 얻어 맞고,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보복하고 되갚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